

닐 스미스의 비판지리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최병두*·황진태**

본 특집은 2012년 가을에 작고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판지리학자, 닐 스미스(Neil Smith)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해외 학계에서는 그를 기리는 추모의 글이 이어졌지만(Cohen et al., 2012; Roberts, 2012; Castree, 2013a; 2013b; Doherty, 2013; Mitchell, 2012; 2014; Heynen, 2013; Slater, 2012), 국내 지리학계나 공간연구 분야에서는 별다른 추모의 분위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역작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1984)은 한국의 지리학계에도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핵심연구 주제였던 불균등발전, 자연과 공간의 생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제국주의 등이 최근 한국 학계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한국 사회에 미친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력은 매우

*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dchjt@snu.ac.kr)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1999년 동아시아 대안지리학회 창립대회와 2000년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의 조직에 직접 개입했으며 양 학술대회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구 업적을 재평가하는 특집을 마련하게 되었음은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특집호에 게재된 3편의 논문은 닐 스미스의 이론을 긍정적 비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국의 사회공간에 적용하는 연구 작업을 통해 그의 사상의 독창성과 통찰력 그리고 응용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추모 후기를 통해 그가 비판적 지리학의 세계적 확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병두는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을 독해하면서 그가 정형화한 불균등발전론의 핵심적 주제들인 자연과 공간의 생산, 사회공간적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 공간 규모의 생산과 자본의 시소운동 등을 면밀히 고찰하면서 그 유의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또한 그의 불균등발전론을 도시적 규모에서 체계화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지대격차(rent gap)’의 개념이 어떻게 내부 도시와 교외 개발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시소운동을 포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2000년대 출판된 그의 두 권의 책, 보우만의 지리학이 어떻게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기여했는가를 서술한 『아메리카 제국』(*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2003),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탐구한 『지구화의 종반』(*The Endgame of Globalization*, 2005)은 그 중심축에 자본의 지리학적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구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최병두는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 후 일련의 연구들이 분명 한계를 가지지만, 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자본주의의 지리학과 그 대안을 정립하기 위한 그의 위대한 이론적 실천적 프로젝트였다고 인정한

다.

다음으로 이상헌은 자연의 생산 개념을 활용하여 이명박 전(前) 서울 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석한다. 국내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정치생태학적 논의가 증가하면서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지만(최병두, 2009), 녹색성장(최병두, 2010), 수자원정책(Hwang, 2015)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에서 이상헌의 연구는 긴요하다. 그는 청계천이라는 자연/공간의 생산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연의 성공적인 탈정치화가 역설적으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던 매우 정치적인 프로젝트였음을 밝힌다. 대안적으로 자연의 생산과정에서 물질적, 담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을 조직하는 환경의 재정치화를 역설한다.

끝으로 이승욱은 앞서 소개한 자연의 생산, 젠트리피케이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에 거의 소개가 된 적이 없는 닐 스미스의 지정학 연구를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는 『아메리카 제국』에서 지리적 지식과 지리학자가 어떻게 미국의 제국주의 건설에 동원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미국 지리학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과학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준 바 있다. 지정학과 지경학(geoeconomics)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그의 입장은 최근에 지리정치경제학(geopolitical economy)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이승욱이 말하듯이 박근혜 정권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외줄타기 외교는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지경학적 파워와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파워 간의 최전방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닐 스미스의 시각을 따를 때 현재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강정해군기지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단순히 지정학적 논의로 한정짓기보다는 지정학적 맥락이 지경학적 맥락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동북아 정세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추모 후기에서 최병두는 개인적 경험을 회고하면서 닐 스미스가 국제

비판지리학대회와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의 창립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의 창립대회(1999)와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2000)가 개최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닐 스미스의 모순적 생애를 간략히 기술하면서 그의 위대한 삶과 안타까운 죽음이 또 다른 모순들로 가득 찬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제국주의적 침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비판적 지리학자의 사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닐 스미스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사상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음은 무척 안타깝지만, 그가 남긴 주요한 개념들을 되짚어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공간에 응용해보는 연구 논문들로 특집을 기획했다는 점은 그가 추구했던 비판적 지리학과 이에 바탕을 둔 대안적 사회공간의 건설을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본 특집호에서 다루진 논의들뿐만 아니라 닐 스미스는 스케일의 정치 논쟁(황진태·정현주, 2015)과 공공공간(Low and Smith, 2013) 논의 등 인문지리학의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탁월한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국내언론보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용어가 매우 빈번히 나오고, 한 유명 대중가수가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용어를 언급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대격차 이론을 제시하면서 일약 스타 도시지리학자로 발돋움한 닐 스미스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이번 특집호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호에서 다루지 못한 논의들은 가까운 미래에 독자들이 만날 수 있길 고대해본다.

닐 스미스의 연구를 회고하고 그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얀 눈발 위를 홀로 걸으며 묵직하게 남긴 한 지리학자의 발자국을 고스란히 따라 밟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의 발자국을 이어서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1984/2008 3판)와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1992)가 번역 중에 있다. 이번 특집호와 곧 출간될 번역본들이 국내 비판지리학자들에게 한국 사회를 향하여 그의 발자국을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조금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참고문헌

- 최병두.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1호, 5~51쪽.
- _____. 2010.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1호, 26~48쪽.
- 황진태·정현주. 2015.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1호, 123~139쪽.
- Castree, N. 2013a. “Neil Robert Smith.”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pp. 94~95.
- _____. 2013b. “A tribute to Neil Robert Smith (18 July 1954~1929 September 201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1), pp. 161~163.
- Cowen, D. et al. 2012. “Neil Smith: a critical geograph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30, pp. 947~962.
- Doherty, J. “Neil Smith, 1954~2012: ‘the future is indeed radically open.’” *Urban Geography*, 34(1), pp. 1~4.
- Heynen, N. 2013. “Neil Smith, 1954~2012.” *Radical Philosophy*, 177, p. 60.
- Hwang, J. T.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47(9), pp. 1926~1943.
- Low, S. & Smith, N. (Eds.). 2013.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New York: Routledge.
- Mitchell, D. 2012. “Neil Smith obituary.” *The Guardian*. 23 October.
- _____. 2014. “Neil Smith, 1954~2012: Marxist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1), pp. 215~222.
- Roberts, B. 2012. “A passionate scholar and socialist.” *Socialist Worker*, <http://socialistworker.org/2012/10/02/passionate-scholar-and-socialist>.
- Slater, T. 2012. “Rose Street and Revolution: a tribute to Neil Smith(1954~2012).” *ACME: An International E-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11(3), pp. 533~546.